

# 영국, 브렉시트·코로나 시민들 '패닉'



**후진국형 생필품 대란 현상  
주유소·마켓 등 사재기 심각  
내달 가스 소매요금도 인상**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인 영국이 식료품과 기름 등 생필품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코로나19 이종고에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겹친 결과다.

'위대한 영국'(Great Britain·GB)을 내세우며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간 영국은 유럽 국가들의 조소를 받고 있다.

◇ 나흘째 주유 대란에 출근도 못해... 소비자 공황 상태

영국에선 27일(현지시간) 나흘째 주유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가 텅 비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주유소에 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서 도로까지 정체해 빚어지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의료진이나 교사가 주유를 못해서 출근을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필수인력에겐 우선권을 주자는 주장도 나왔다.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나 볼 법한 이같은 풍경이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가 기름 수송에 군대 동원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총리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유대란 계기는 언론보도였다. 정유업체 BP가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다음 날부터 사재기가 시작됐다.

◇ 슈퍼마켓 진열대도 비고 난방요금 등 생계비 급등

영국은 올해 초 시작한 코로나19 봉쇄가 7월에 끝나면서 인력난과 인력 공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자 자가 격리자가 급증해서 트럭 운전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해 졌다. 일부 슈퍼가 문을 닫았고 식당 등 서비스업종이 큰 영향을 받았으며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부문도 폐쇄됐다. 브렉시트 후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인력 공백이 생긴 탓도 컸다.



영국 런던에 있는 센즈베리 슈퍼마켓에서 한 직원이 비어있는 매대에 채소와 샐러드 원사귀를 채워 놓고 있다.

여기에 가스요금 급등이 더해지면서 식품 공급 문제가 더 악화하고 생계비도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식료품 가격은 슬금슬금 오름세이고 휘발유 가격은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 가스 소매요금도 10월부터 크게 오른다.

◇ "브렉시트 탓 아니다" 주장... 독일 총리 후보 "잘 해결하길"

올라프 숄츠 독일 시민당 총리 후보는 총선에서 시민당이 신승을 거둔 뒤 영국의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썼다. 이제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트럭 운전사들은 장기 비자와 높은 급료가 없으면 영국에 가서 도와주기 어려우며, 영국인들이 브렉시트의 결과를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브렉시트를 내세워 집권한 영국 보수당은 브렉시트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현재 트럭 운전사가 10만 명 부족해 브렉시트로 EU 국가들로 돌아간 인력이 2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봉쇄 중에 신규 대형트럭 운전면허 신청이 4만 건이나 밀렸는데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행정 무능도 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이다.

/연합뉴스

## 미국 '친중 논란' IMF총재와 거리두기

의혹 조사 요구 목소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의 순위를 올리려고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조작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미국이 접촉을 꺼리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의명의 소식통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친중국 논란' 스캔들이 터지자 게오르기예바 총재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조바

이든 행정부가 미심쩍은 게오르기예바 총재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루베이 애셋매니지먼트의 이머징마켓 선임 전략가인 티모시 애쉬는 "IMF의 신뢰도가 분명히 손상되고 있다"면서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미 재무부가 게오르기예바 총재의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맥스 워터스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의혹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왕이 "아·태지역 중국이 편히 지낼 곳"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편히 거할(안신입명) 장소"라며 아태 지역에서 이뤄지는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양자회담(나토·NATO) 사무총장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나토 회원국은 선박과 비행기를 중국 주변에 접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왕 부장이 구체적으로 '아태 지역'을 거론하며 안신입명이라는 성어를 쓴



나토 사무총장(오른쪽)과 화상회담하는 왕이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포위전략에 맞서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독일 총선서 첫 성전환자 2명 당선

녹색당 소속 갠서러·슬라워

지난 26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 의원 2명이 탄생했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나선 테사 갠서러(44)와 나이크 슬라워(27)이 독일 의회 역사상 성전환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갠서러 당선인은 "(당선은) 녹색당뿐만 아니라 트랜스 해방 운동과 동성애자 커뮤니티 전체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이번 (선거) 결과는 개방적이고 관대한 사회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갠서러 당선인은 정책 최우선 순위는 신분증상의 성별 변경 승인 절차를 더 쉽게 하는 것이다.

두 아들을 둔 그녀는 또 여자 동성애자(레즈비언) 어머니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테사 갠서러 나이크 슬라워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당선된 슬라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직도 (당선을) 믿을 수 없지만, 저는 틀림없이 다음 분데스타그(하원)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슬라워 당선인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포비아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행동 계획과 자기 결정법, 연방 차별금지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hotelthestar.com

### 천년의빛 영광

##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회의실

객실

엑스포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